“장애 이해·공감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확대하겠다”

엠마우스복지관, 금호중앙여고와 ‘장애 이해’ 캠페인
감각 체험·언어 이해·점자 퀴즈 등 다양한 부스 ‘호응’

광주 엠마우스복지관이 금호중앙여자고등학교와 공동으로 ‘장애 이해 캠페인’을 벌였다.

엠마우스복지관은 지난 31일 금호중앙여자고등학교 2학년 학생 125명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광주시민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학생들은 직접 방송 진행까지 맡으며 ‘배리어 프리(Barrier-Free)’를 주제로 다양한 미디어 체험도 경험했다.

캠페인에서는 감각 체험, 언어 이해, 점자 퀴즈 등 다양한 부스가 운영됐다.

‘감각의 앙케스트라’ 부스에서는 시각이 왜곡된 글을 읽고, 블록을 쌓으며 손의 미세 움직임과 집중력을 체험하고, 콘으로 표시된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공간 인지와 균형 감각의 어려움을 경험했다.

‘쉬운말 책갈피’ 부스에서는 발달 장애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쉽게 바꿔 책갈피를 제작했고, ‘앙퀴즈’ 부스에서는 비즈로 제작된 점자판을 읽으며 발달 장애 관련 용어를 학습했다.

정소미 학생은 “준비 과정부터 직접 참여하며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주변 친구들에게도 배리어 프리와 공감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행사를 주관한 엠마우스 복지관 이도원 사회복지사는 “지난 1년간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장애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호중앙여고는 엠마우스 복지관과 함께하는 활동을 수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미술반 학생들이 제작한 동화책을 인근 유치원에서 낭독하는 등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광주 엠마우스복지관이 지난 31일 금호중앙여자고등학교와 공동으로 ‘장애 이해 캠페인’을 벌였다.

전남개발공사-동신대, 한옥호텔 오동재·영산재 활성화 ‘맞손’

관광콘텐츠 공동개발 등 지속 성장기반 마련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충모)는 최근 한옥호텔 영산재에서 동신대학교와 ‘한옥호텔 오동재·영산재 활성화 및 관광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호텔 현장실습 지원 및 학점 반영 △관광콘텐츠 공동개발 △홍보·마케팅 협업 △세미나 및 포럼 개최 등 전남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청년층의 현장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한옥호텔 오동재·영산재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한옥호텔 활성화와 지역 관광산업의 질적 도약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옥호텔을 중심으로 전남형 관광거점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 바다의 푸른 물결과 남해의 낭만적 정취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오동재’와, 영산강변의 고즈넉한 풍광 속에 위치해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설계된 ‘영산재’는 전통한옥의 미학과 현대적 편의성이 조화를 이뤄 전남의 정체성을 담아낸 ‘쉼과 치유의 한옥호텔’로서 가족 여행객에게 인기가 높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개발공사는 최근 한옥호텔 영산재에서 동신대학교와 ‘한옥호텔 오동재·영산재 활성화 및 관광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제청소년교육문화원, 담양 중·고등학교장 회의

청소년 교육 협력 강화 논의

국제청소년교육문화원은 3일 담양지역 중·고등학교장 회의를 갖고 청소년 교육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 청소년의 바른 인성과 창의력 함양을 위해 학교와 문화원이 함께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으며, 박은희 담양공업고등학교 교장을 비롯해 지역 내 10개 학교의 교장이 참석했다.

회의는 이근우 국제청소년교육문화원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화원 주요 업무 소개와 학교-문화원 연계 교육 프로그램 협력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 교장들은 학생 눈높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수련활동 홍보 강화, 환경·인성교육 확대등 다양한 협력 과제를 제안하며, 향후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이근우 이사장은 “청소년은 지역의 미래이며 학교 교육과 학교 밖 수련활동이 함께할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문화원이 학교 현장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들이 나라 사랑과 부모 효도, 올바른 인성을 갖춘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광주 남구 22대 민주평통회장에 채선필 이사 임명

간사는 은봉희 남구의원

채선필

은봉희

광주 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이하 민주평통’)의 제22기 회장에 채선필 샘신협 상임이사, 간사에는 광주시 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은봉희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민주평통은 평화통일정책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수렴·국민적 합의 도출·범국민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등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자문 및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신임 회장단의 임기는 11월1일부터 2년간이다.

채선필 회장은 샘신협 상임이사,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비상임이사, 조선대학교 외래교수, 국제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나주대학교 겸임교수, 광주 남구의회 의원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오고 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영광군미래교육재단 초대 원장에 김명신씨 선임

“아이들 영광서 배우고 자라 지역 빛낼 인재로 육성”

영광군미래교육재단은 최근 초대 원장에 전남도 부이사관 출신의 김명신씨(사진)를 선임했다.

3일 영광군에 따르면 미래교육재단은 지역교육 혁신을 통해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2년여 준비과정을 거쳐 10월 사무개시를 시작했다.

초대 원장으로 선임된 김명신 원장은 1966년 영광 염산면 출신으로, 1984년 무안군청에서 공직을 시작해 영광군청 투자유치과장, 환경녹지과장을 거쳐 장성군 부군수,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 등을 역임한 행정전문가다.

김 원장은 “재단은 ‘함께 키우는 교육, 지속 가능한 영광’이라는 비전을 두고 아이들이 영광에서 배우고 자라 지역을 빛낼 수 있는 인재로 커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미래교육재단은 지역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2025년 2학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을 시행,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사무실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를 받는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gp98@

광주 서부경찰 형사4팀이 광주경찰청 주관 2025년 3분기 ‘빛고을 으뜸 형사팀’ 1위에 선정됐다.

광주 서부경찰 형사4팀·강력3팀 ‘으뜸 형사팀’

사건처리·4대 범죄 검거 등 평가…수사력 인정

광주 서부경찰이 수사력을 인정 받아 광주경찰청 빛고을 으뜸 형사팀에 선정됐다. 3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서부경찰 형사4팀이 광주경찰청 주관 2025년 3분기 ‘빛고을 으뜸 형사팀’ 1위에 선정되며 빛나는 수사력을 입증했다.

으뜸 형사팀은 사건처리 건수와 4대 범죄 검거 건수의 정량평가와 피해자 보호 조치 등 정성평가 등을 토대로 소신 있는 형사 활동이 이뤄지도록 광주경찰청에서 분기마다 선발하고 있다.

양재성 팀장(경감), 김준원 경위, 황준원 경감, 김준환 경위, 이슬기 경사, 이경춘 경장으로 구성된 형사4팀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사건 129건을 처리했다.

특히 75건에 달하는 4대 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 검거 건수를 기록하며 수사력을 인정받았다.

최근에는 출소 당일 술에 취해 일면식 없는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 폭행을 한 30대를 폭행 혐의로 구속하기도 했다.

또 김정수 팀장(경감)을 필두로 박희서·이진근 경위, 박상우 경사로 구성된 서부서 강력3팀도 으뜸 형사팀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같은 기간 88건의 사건을 처리했고, 76건의 4대 범죄 검거 건수를 기록했다. 검거가 쉽지 않은 생활범죄 용의자를 끈질긴 추적끝에 검거해 지역 치안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부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치안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KT&G, 동신대에 소외계층 대학생 장학금 ‘쾌척’

“사회적 책임·의무 다할 것”

KT&G 전남제주본부는 최근 동신대학교에 소외계층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KT&G의 ‘상상펀드’ 기금으로 마련됐다. 장학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 대학생의 학업 지속성 제고 및 생활 안정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상상펀드’는 2011년 출범한 KT&G의 독창적 사회공헌기금으로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의 일정 금액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면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더하는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 형태로 조성되며 국내외 소외계층 지원과 긴급한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되고 있다.

차형철 KT&G 전남제주본부장은 “지역 우수 인재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펼쳐나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의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

KT&G 전남제주본부는 최근 동신대학교에 소외계층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